

# 시설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Link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Youth in Residential Care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박은미

조교수 장신재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Jangs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Eun Mie Park

Assistant Professor : Sin-Jae Jang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 esteem on the link between social support(e.g. from family, friends and significant oth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youth in residential car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4 nationwide institutions between June 10th to June 20th, 2008. Self-reporting surveys were employed to gather information from 412 sources within these institution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12.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self-esteem could be used to predict career decision-making level( $\beta = -.262, p < .001$ ). Furthermore, self-esteem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beta = -.749, p < .001$ ). Specifically, self-esteem and the scale of social support from family, friends or significant others had a moderating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level( $\beta = -.118, p < .001$ ).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on career decision-making intervention of youth in residential care and future research priorities a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making level),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자아존중감(self-esteem), 시설보호청소년(youth in residential care)

## I. 서론

시설보호청소년에게 있어서 진로문제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이며(김통원, 김경륜, 김성천, 박은미, 이상균, 2005; 신혜령, 박은미, 강현아, 2008; 이해연, 서정아, 조홍식, 정익중, 2007), 불안정한 취업상태나 잦은 이직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시설퇴소 이후 취업 상황은 불안정하여 18세에서 23세 사이의 퇴소 청소년들의 46.5%, 24세에서 29세 사이의 퇴소 청년들의 25.9%가 무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해연 외, 2007). 또한 시설청소년들이 퇴소 직전까지도 진학인지, 취업인지에 대한 진로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진로지도와 기술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강복정, 2000; 이현림, 이영옥, 2005, 재인용).

가족의 지지 속에서 서서히 자율과 독립으로 전환하는 일반 청소년들(Lammert & Timberlake, 1986; 신혜령, 2001, 재인용)과는 달리, 시설에서 의식주 제공을 받으며 생활하던 청소년들은 18세를 기점으로 성인기로 발달상의 전환과 함께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자립을 해야만 하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시설보호청소년들의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강철희, 2001; 김통원 외 2005; 노충래, 2001;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신혜령 외, 2008; 원지영, 2008; 이해연 외, 2007). 이미 오래전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시설보호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법을 제정하고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등 진로영역은 자립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영역 중에 하나이다(김통원 외, 2005; 노충래, 2001; 신혜령 외, 2008; 신혜령, 한지은, 2006; 이해연 외, 2007).

자립지원 영역 중에 특히 진로결정은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청소년들과는 달리, 시설청소년들은 퇴소 이전에 진로결정을 해서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해야 퇴소 이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퇴소 이후 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시설보호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퇴소 이전에 진로결정을 해야 진로준비가 가능하다.

진로결정이란 진로에 대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과 직업의 선택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이다(유계식, 이재창, 1997). 진로결정은 개인에게 있어서 흥미에 대한 프로파일이라 할 수 있는데, 관심영역이 불확실하거나 자신의 성격유형과 일치하지 않으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Nauta & Kahn, 2007).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현림, 김봉환, 김병숙, 최응용, 2003, p. 286), 특히 진로미결정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주요 이슈로서 다양한 변수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Creed, Patton, & Prideaux, 2006).

진로결정수준이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로서 가족구조나 관계, 부모의 행동 등이 보고되고 있다(Chope, 2005; Hill, Ramirez, & Dumka, 2003; Fassinger, 1996; Keller, Whiston, 2008; Lent, Brown, & Hackett, 1994; Nauta, Saucier, & Woodard, 2001). 특히 아동기 정서적 지지의 부족이나 가족과의 부적절한 분리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외국의 선행연구가 있다(Chope, 2001; Lopez & Andrews, 1987). 그러나 국내에서는 부모와의 헤어짐을 경험한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연구나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모와의 격리를 경험하고 가족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있는 시설보호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은 일반청소년들과는 다를 수 있다. 특히, 시설보호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족의 영향력 대신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고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볼 수 있다(김민배, 문승태, 2004; 김은석, 정남운, 2006; 김정숙, 서리나, 탁정미, 2006).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다른 의미있는 타인들과 맺는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유대, 시행된 또는 실제적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된다(Barrera, 1986; 노혜숙, 신현숙, 2008: 152-153, 재인용). 특히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주관적인 측면을 반영하며, 필요할 때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Cohen & Willis, 1985; House & Kahn, 1985; 노혜숙, 신현숙, 153, 재인용),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의미있는 타자의 지지로 살펴볼 수 있다.

Chope(2001)는 아동기에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진로선택에 있어서 미결정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Lopez와 Andrews(1987)도 부모와 부적절한 분리를 경험했거나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타인(important others)으로부터의 지지와 격려 역시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시설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낮아도 부모를 대신하는 생활교사나 시설의 성인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영

향을 준다는 연구 이외에 가족구성원과 친구들과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단절이나 갈등은 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 등에 영향을 주어 진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들도 있다(Fassinger, 1996; Lent et al., 1994; Nauta et al., 2001).

특히, 자아존중감은 특정 대상, 즉 자아(self)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Rosenberg, 1965; Santos, 2001, 재인용), 진로결정수준과 관련해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진로미결정의 예측변수라고 보고한 연구들이 많다(김희수, 2005; 송소원, 2001; Bacanli, 2006; Cooper, Fuqua, & Hartman, 1984; Santos, 2001). 자아존중감은 인간 발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개인 정신 건강의 중추가 되고,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과 건전한 성격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어주경, 1998). 그런데, 안정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시설보호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으나(석주영, 안옥희, 박인전, 2003;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일부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김상미, 2001; 이상준, 2008). 대체로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의 진로결정수준 등과 같은 진로관련 변인과의 관계는 다수의 연구에서 검증되어 왔으나,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적절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이외의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Waters & Moore, 2002; 황미규, 김근영, 2008, 재인용). 가족원과의 단절과 진로결정의 영향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가족원과의 단절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Fassinger, 1996; Lent et al., 1994; Nauta et al., 2001).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시설보호청소년의 체제적 진로지도가 필요하고 진로결정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일찍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들이 있을 뿐,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이며, 어떠한 기제로 이들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기초하면, 일반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등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들이다. 그런데 외국의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면, 부모와 헤어져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이들의 진로결정은 일반청소년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시설보호청소년에게 적절한 진로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

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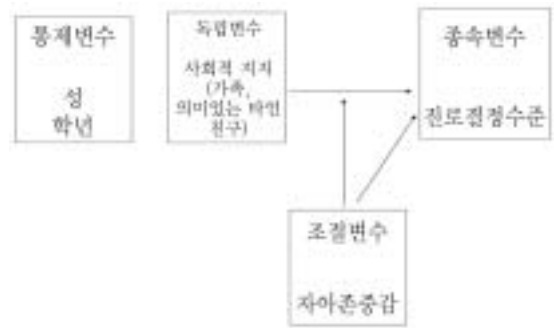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어떠한가?
- 둘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 셋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들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보호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성과 학년은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의미있는 타자, 친구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도 분석되었다.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사업인 '보호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14개 생활시설에서 선정되었다. 14개 시설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동양육시설이 11개소,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 보호치료시설이 1개소였다. 이들 14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이상, 596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중학생 이상 439명 전원이 본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자료는 3년간 진행될 상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전조사의 성격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면접조사자

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실무자들에게 조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2008년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청소년들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439부였으며, 이중 무응답 항목이 많은 설문지들을 제외하고 총 412부가 분석되었다.

### 3. 변수의 측정 및 신뢰도

#### 1)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향자(1992)가 번안하여 수정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척도는 Osipow 등(1976)이 만든 것이며,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향자, 1992). 이중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는 문항 2개와 채점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반응형 문항 1개를 제외하고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미결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91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988)이 고안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면적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척도로 수행되었으나, 김소임(1999)은 5점 척도로 수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6, pp. 556-558).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자 등,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의 하위차원들은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91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인 가족은 .84, 친구는 .87, 의미 있는 타자는 .87로 나타났다.

####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 차원의 리커트(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지 않다'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이며,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다(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6, pp. 88-9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76으로 나타났다.

#### 4) 통제변수

시설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자아정체감이나 자존감, 진로결정수준 등과 관련해서는 연령이나 성별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다(유안진 외, 2002; 이상준, 2008; 이안영, 김진이, 2006; Albion & Fogarty, 2002; Keller & Whiston, 200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성과 연령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연령은 신체적인 나이 보다는 진로와 관련해서는 학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학년으로 대체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중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435개의 설문은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 작업(data cleaning)을 진행한 후, SPSS program(1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성과 학년

분석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241명(55.9%)으로 여학생 187명(44.1%)보다 다소 많았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이 85명(20.5%)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학년이 69명(16.6%)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67명(16.1%), 고등학교 3학년이 63명(15.2%), 고등학교 1학년이 62명(14.9%), 중학교 1학년이 55명(1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성과 학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	남	231	56.1
	여	181	43.9
	계	412	100.0
학년	전문대2	11	2.7
	전문대1	3	0.7
	고3	62	15.1
	고2	65	15.8
	고1	62	15.1
	중3	85	20.6
	중2	69	16.7
	중1	55	13.3
	계	412	100.0

2.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표준화시켰을 때, 평균 2.35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타자, 가족, 친구의 하위 차원으로 측정하였는데, 5점 척도로 표준화시켰을 때, 의미 있는 타자는 평균이 3.58이고, 가족 평균은 3.35, 친구 평균은 3.67로 측정되어 가족에 비해서 친구와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표준화시켰을 때, 평균이 2.75로 나타났다.

〈표 2〉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요인	N	M	SD	최소값	최대값
진로결정수준	412	2.35	.51	1	4
사회적 지지	412	3.53	.77	1	5
사회적 의미있는 타자	412	3.58	.93	1	5
가족	412	3.35	.93	1	5
친구	412	3.67	.91	1	5
자아존중감	412	2.75	.62	1	4

3.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이외에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는 성별과 학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우선 1단계 회귀분석에 투입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표 3〉과 같다.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회귀모형의 값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변수의 투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다중공선성도 VIF계수가 2 이하로 나타나 문제가 없었다. 본 모형이 분석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정도는 8.5%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3〉에서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자아

〈표 3〉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진로결정수준 (n = 412)	
	$\beta$	t
사회적 지지	-.076	-1.420
자아존중감	-.262	-4.969***
성별	-.010	-.216
학년	-.052	-1.092
$R^2$	.094	
수정된 $R^2$	.085	
F	10.523***	

\*\*\* $p < .001$ .

존중감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만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 미결정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조절효과

다음 단계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상호작용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곱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을 센터링(centering)하였다. 그 결과, VIF계수가 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잔차의 독립성에서도 dw 통계치가 1.95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회귀모형의 F값 또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0.3%이었다.

〈표 4〉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조절효과 검증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사회적 지지	-.076	-.648***
자아존중감	-.262***	-.237***
사회적 지지×자아존중감		-.749***
성별	-.010	-.006
학년	-.052	-.039
$R^2$	0.94	.114
수정된 $R^2$	.085	.103
$R^2$ 변화량		.020
F	10.523***	10.423***

\* $p < .05$ , \*\*\* $p < .001$ .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또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의 미결정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에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진로 미결정수준이 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5.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과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들과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차원별로 1단계 회귀분석에 투입된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다.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각 회귀모형의 값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모두 검증되었다. 또한 변수의 투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다중공선성도 VIF계수가 2 이하로 나타나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에서도 dw 통계치가 2 이하로 나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모형이 분석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정도는 8.6%, 8.5%, 8.1%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차원들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의미있는 타자의 차원만이  $p < .001$ ,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미있는 타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 미결정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과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진로결정수준 (n = 412)				
	$\beta$	t	$R^2$	수정된 $R^2$	F
의미있는 타자	-.082	-1.547*			
자아존중감	-.262	-5.039***			
성별	-.004	-.089	.095	.086	10.626***
학년	-.051	-1.073			
가족	-.072	-1.442			
자아존중감	-.272	-5.442***	.094	.085	10.485***
성별	-.026	-.543			
학년	-.051	-1.081			
친구	-.023	-.441			
자아존중감	-.286	-5.593***	.090	.081	10.023***
성별	-.018	-.359			
학년	-.053	-1.115			

\* $p < .05$ . \*\*\* $p < .001$ .

6. 사회적 지지 하위차원과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차원들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차원들에 대한 회귀모형의 F값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각 회귀모형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차원 중 의미있는 타자 및 친구 요인만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것은 의미있는 타자와 친구 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분석대상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타자의 도움과 친구의

<표 6> 사회적 지지 하위차원과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조절효과 검증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의미있는 타자	-.082*	-.118*
자아존중감	-.262***	-.243***
의미있는타자×자아존중감		-.128**
성별	-.004	.000
학년	-.051	-.040
$R^2$	.095	.110
수정된 $R^2$	.086	.099
$R^2$ 변화량		.015**
F	10.626***	10.021***
가족	-1.442	-.084
자아존중감	-5.442***	-.264***
가족×자아존중감		-.078
성별	-.543	-.026
학년	-1.081	-.046
$R^2$	.094	.010
수정된 $R^2$	.085	.089
$R^2$ 변화량		.006
F	10.485***	8.947***
친구	-.023	.790**
자아존중감	-.286***	-.260***
친구×자아존중감		-.840**
성별	-.018	-.007
학년	-.053	-.040
$R^2$	.090	.113
수정된 $R^2$	.081	.102
$R^2$ 변화량		.024**
F	10.023***	10.382***

\* $p < .05$ . \*\* $p < .01$ . \*\*\* $p < .001$ .

지원이 진로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그 효과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들과는 달리 퇴소 전에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시설보호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관계와 이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으나, 가족, 의미있는 타자, 친구 등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된다고 설명되고 있는 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별 분석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단절이 자아존중감과 함께 작용하여 진로결정수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다. 본 연구는 시설보호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청소년들과는 달리 가족으로부터의 격리를 경험하고 있

는 이들 시설보호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특히 이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살펴본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가족, 의미있는 타자, 친구로 구성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이들의 진로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데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수행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청소년비행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보고되어 왔다(정익중, 2006; 정익중, 2007).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진로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들과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의미있는 타자와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시설보호청소년들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되었을 때, 가족의 지지나 친구의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증되지 않은 반면, 의미있는 타자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보호청소년들에게는 의미있는 타자가 중요한 개입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조절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시설보호청소년들이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을 할 때,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향상시키도록 하면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들과 자아존중감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 중 의미있는 타자 및 친구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 중 의미있는 타자 및 친구의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주는 영향을 더욱 확실하게 함이 확인된 바, 시설보호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의미있는 타자 및 친구의 지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면 시설보호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진로지원에 있어서 진로와 직접 관련된 변인들 뿐 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수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일반청소년들에게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검증되어 왔으나, 시설보호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별 분석에서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증되지 않은 반면, 의미있는 타자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검증됨으로써, 시설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생활교사나 시설장 등 성인들의 영향이 이들의 진로결정수준에도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검증됨으로써, 시설보호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아존중감과 의미있는 타자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함께 수행되는 것의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는 생애과정인 진로발달을 횡단적인 방법으로만 분석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등의 몇 가지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활발한 후속연구들이 기대된다.

## ■ 참고문헌

강복정(2000). 시설 청소년을 위한 퇴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강철희(2001). 시설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아동과 퇴소 후 자립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제 15회 학술대회 자료집: 시설보호아동의 자립강화방안**. 3-45.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민배, 문승태(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92-105.

김은석, 정남운(2006).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502-503.

김정숙, 서리나, 탁정미(2005).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9(4), 5-14.

김통원, 김경륜, 김성천, 박은미, 이상균(2005).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개발연구. 보건복지부·한국아동복지연합회 연구보고서.

김희수(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노충래(2001). 한국 및 미국의 요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5회 학술대회 자료집: 시설보호아동의 자립강화방안**. 51-99.
- 노혜숙, 신현숙(2008). 청소년의 감작성향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2), 147-168.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8). 보호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제1차 실무자 교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워크숍자료집.
- 서조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2006).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척도집**. 서울: 나눔의 집.
- 석주영, 안옥희, 박인전(2003).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5-26.
- 송소원(2001).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학생생활연구**, 1-23.
- 신혜령(2001). 시설 청소년의 자립 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2003). 시설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167-193.
- 신혜령, 박은미, 강현아(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신혜령, 한지은(2006). 보호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매뉴얼. 보건복지부.
- 원지영(2008). 아동복지시스템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 현황과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7), 79-107.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계식, 이재창(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담과 심리치료**, 12(1), 259-288.
-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 이상준(2008). 시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양육환경 -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15(3), 49-69.
- 이안영, 김진이(2006).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과 탄력성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7(2), 159-183.
- 이현림, 김봉환, 김병숙, 최응용(2003). **현대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이현림, 이영옥(2005). 현실치료를 적용한 진로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2(4), 1-17.
- 이혜연, 서정아, 조홍식, 정익중(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7-R11.
- 정익중(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133-159.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황미구, 김근영(2008). 중학생의 진로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질 및 상태변인의 관계: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 및 정신건강의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3), 71-95.
- Albion, M. J., & Fogarty, G. J.(2002).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making i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1), 91-126.
- Bacanli, F.(2006).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personal indecisivenes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2(4), 320-332.
- Barrera, M. Jr.(1986). Distinctions between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13-446.
- Chope, R. C.(2001). Influence of the family in career decision making: Identity development, career path and life planning. *Career Planning and Adult Development Journal*, 17, 54-64.
- Chope, R. C.(2005). Qualitatively assessing family influence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4), 395-414.
- Cohen, S., & Willi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oper, S. E., Fuqua, D. R., & Hartman, B. W.(1984). The relationship of trait indecisiveness to vocational uncertainty, career indecision,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353-357.
- Creed, P., Patton, W., & Prideaux, L.(2006).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



- longitudinal cross-lagged analysi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47-65.
- Fessinger, R. E.(1996). Notes from the margins: Integrating lesbian experience into the vocational psychology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160-175.
- Hill, N. E., Ramirez, C., & Dumka, L. E.(2003). Early adolescents' career aspirations: A qualitative study of perceived barriers and family support among low-income ethnically diverse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4, 934-959.
- House, J. S., & Kahn, R. L.(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83-108). New York: Academic Press.
- Keller, B. K., & Whiston, S. C.(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OnlineFisrt*, published on January 31, 200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s,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opez, F. G., & Andrews, S.(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304-307.
- Nauta, M. M., & Kahn, J. H.(2007). Identity status, consistency and differentiation of interest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55-65.
- Nauta, M. M., Saucier, A. M., & Woodard, L. E.(2001). Interpersonal influences on students' academic and career decisions: The impact of sexual orienta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4), 352-362.
- Ospow, S. H., & Carney, G. C., & Barack, A.(1976). A Scale of educational vocational undecidedness :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23-243.
- Santos, P. J.(2001). Predictors of generalized indecision among Portuguese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4), 381-396.

접 수 일 : 2009년 3월 25일

심사시작일 : 2009년 3월 27일

게재확정일 : 2009년 4월 14일